

취업주부 쓰임새 되레적다

94.2.14

‘취업따른 소비지출’연구 분석

전업주부보다 식료품비등 덜 사용

“주부가 직장에 다니면 소비가 늘어난다”는 통념과는 달리 가계의 쓰임새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.

국은경제연구소가 90년 통계청 <도시가계연보>를 기준으로 최근 전국 도시근로자 1천2백4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‘주부의 취업이 가정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’에 따르면, 전업주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71만5천1백80원인 데 비해 취업주부 가구는 67만5백22원으로 전업주부 가구보다 적었다.

소득 가운데 소비지출의 비율도 취업주부 가구의 경우 66.2%로, 전업주부 가구의 71.4%보다 낮았다.

취업주부 가구는 출·퇴근 교통

비, 교육비, 주거비를 빼고는 식료품(외식 포함), 광열·수도, 가구·가사용품, 통신비 등 거의 모든 지출품목에서 전업주부 가구에 비해 쓰임새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식료품비는 맛별이가정과 전업주부 가정간에 지출차이가 심했다.

취업주부 가구의 경우 식비로 월평균 21만7천7백23원을 지출해 전업주부 가구보다 1만3천8백50원을 적게 지출했고, 외식비도 4천5백50원을 덜 썼다.

주부가 취업한 경우 전업주부 가정보다 더 많이 지출한 항목은 출·퇴근 교통비, 탁아비, 피복비, 교제비 등이 취업관련 비용이었다.